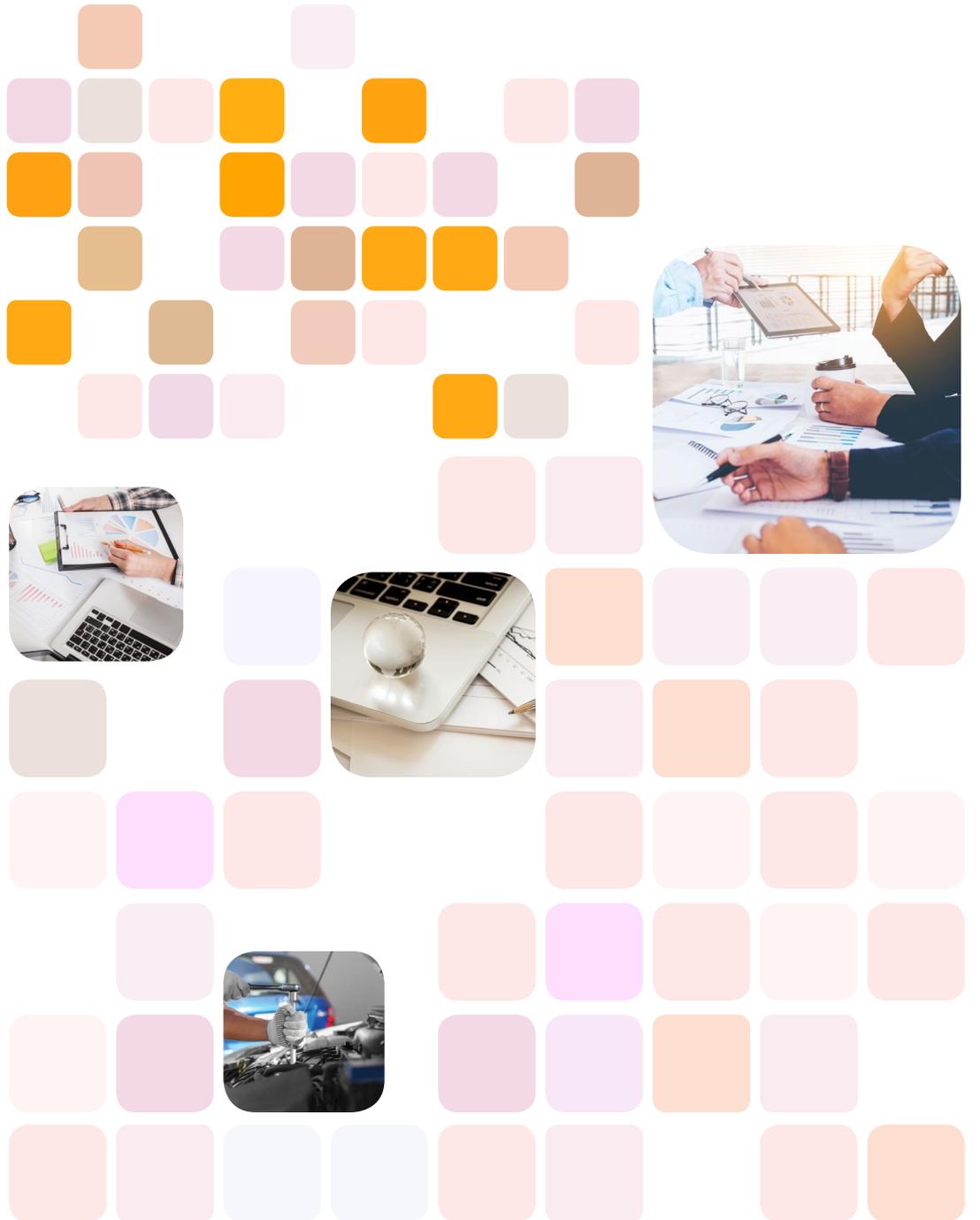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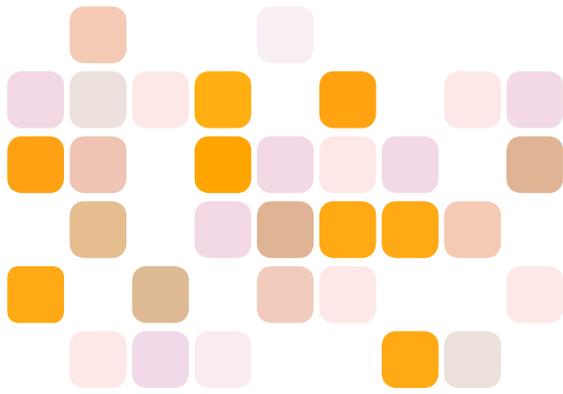


INSURANCE WORLD

NO. 424 | February 2018





해외보험시장

- 발행일 2018년 02월
- 발행인 원종규 / 편집인 김용남
- 발행처 서울시 종로구 종로 5길 68(수송동)
코리안리 빌딩 11층 경영지원팀 조사연구파트
- 대표전화 02)3702-6000
- 팩스 02)3702-8805
- 인터넷 www.koreanre.co.kr

NO. 424 | February 2018

Contents

2018년 재보험 특약 갱신 동향	03
글로벌 리콜보험시장 동향	10
2017년 세계 자연재해 분석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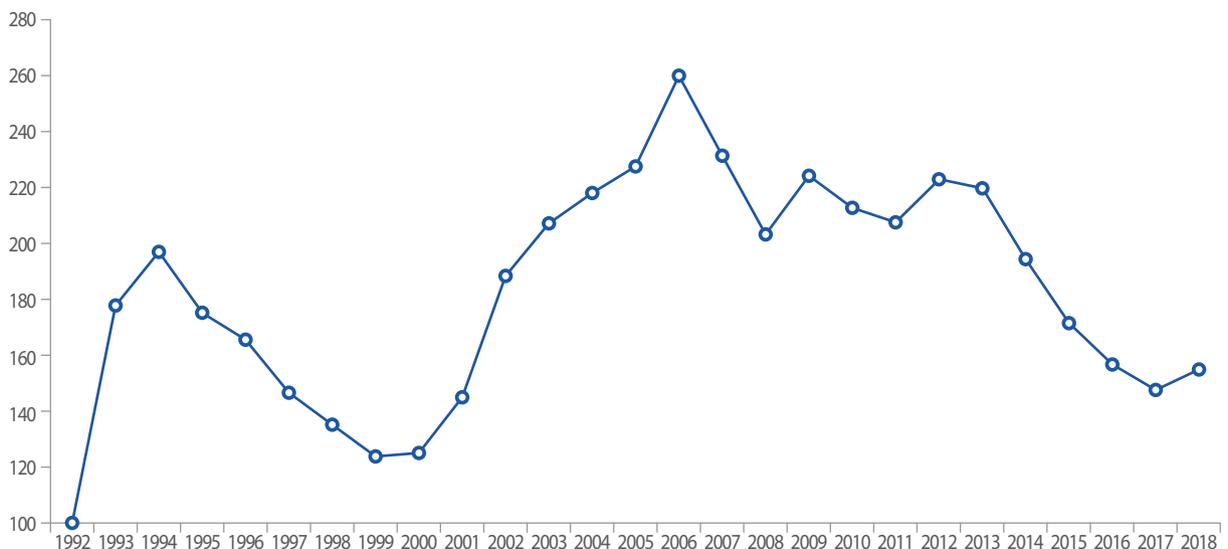


2018년 재보험 특약 갱신 동향

지난 5년간 하락 추세에 있던 재보험 요율이 지역별, 종목별로 편차는 있으나 2018년 1월 갱신에서는 전세계적으로 상승 추세로 전환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미국 남부 지역과 카리브해 허리케인, 캘리포니아 산불의 영향을 받은 지역에서는 보험요율 인상이 뚜렷하게 나타났으며, 무사고 계약들의 경우에도 대부분 한자릿수 범위 안에서 요율 인상이 이루어졌다.

2017년 자연재해에 따른 전세계 보험손해액이 약 1,340억 달러로 집계되어 지난해 대비 163%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었는데, 이는 2011년과 2005년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많은 수준이다. 지난 해 보험 손실의 대부분은 미국 남부 지역과 카리브해 허리케인, 멕시코 지진, 미국 캘리포니아 산불 등 큰 재해가 덮친 미주 지역에서 발생하였다. 이러한 자연재해의 발생으로 이번 1월 갱신에서는 보험요율 인상 움직임이 본격화 되었으나 상승폭은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 전세계 재물보험 자연재해 요율 지수 〉



※ 출처 : JLT Re, 1992년을 기준으로 한 요율 변동 지수

재보험 구매자, 즉 출재사들은 최근의 글로벌 재보험 산업이 기존의 2011년과 2005년과는 사뭇 다른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을 것이다. 2005년 허리케인 Katrina · Rita · Wilma 및 2011년 일본 · 뉴질랜드 지진과 태국 홍수 등의 대형 자연재해는 보험회사의 지급여력을 위협하였다. 그러나 이후 재보험시장에 대체자본이 꾸준히 유입되고 축적되면서 재보험 담보력과 요율이 안정화되어 대형재해가 발생한 후에도 시장이 극도로 하드화되는 것을 막고 있다. 과거 재보험시장이 전통적 재보험에 대한 높은 의존도로 인해 하드마켓과 소프트마켓을 오가는 언더라이팅 사이클의 발생이 필연적이었다면, 재보험 시장에 대체자본이 꾸준히 유입되고 축적되면서 출재사들은 안정적 인수능력 확보가 가능하고 재보험료 수준을 언더라이팅 사이클에 큰 상관 없이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되었다. 2017년 연이은 대형 자연재해의 발생으로 많은 재보험 관계자(재보험자 및 출재사)들은 재보험시장의 혼란을 예상하였다. 그러나 금번 1월 특약갱신을 통해 대형 자연재해의 발생 이후에도 대부분의 출재사들은 시장의 혼란스러운 상황 없이 합리적인 가격에 재보험 담보력을 안정적으로 제공 받았으며, 이러한 재보험 영업환경은 과거와 같이 대형 자연재해 직후 큰 폭의 보험요율 상승을 기대했던 많은 재보험사들에게는 다소 실망스러웠다고 할 수 있겠다.

본고에서는 2018년 1월 재보험 특약 갱신에서 나타난 지역별, 종목별 갱신 동향을 살펴보며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I. 재물보험(Property)

(1) 아시아

계약별로 사고 여부에 따라 요율 상승폭이 상이하였으나 전반적으로 당초 예상보다 큰 폭의 요율 인상은 없었으며, 출재사의 추가 담보 요구에 대한 특별한 이슈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경우 대규모 담보력이 필요한 비비레 특약은 허리케인 Harvey, Irma, Maria의 영향을 덜 받은 자국내 재보험자들에 의해 인수되었다. 현지 대형 사고 부재로 대부분 계약들의 실적이 양호함에도 불구하고, 출재사들의 조건 개선에 대한 요구는 전년 대비 많이 감소하고 요율도 안정세로 돌아서는 모습을 보였다.

한국의 경우 출재사들은 재보험 비용을 낮추기 위해 계속적으로 보유 확대 추세에 있으며, 담보범위 확대, 면책조건 등에 대한 변경은 없었다. 최근 몇 년간 국내 대형 자연재해 부재로 담보력은 풍부한 상태이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무사고 Cat XL의 경우에도 요율이 최대 15%까지 인상되는 등 하드마켓으로 전환되는 모습을 보였으나, 여전히 해외 재보험사들이 기대한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영 재보험사에 대한 출재 의무화로 자국내 보유가 극대화 됨에 따라 2018년 로컬 재보험사들도 안정적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 아시아 국가별 재물보험 1월 갱신 요율 증감 현황 〉

구 분	비례특약 수수료	Risk XL		Cat XL	
		무사고	사고	무사고	사고
중 국	-2.5%~1%	N/A	10~25%	N/A	-10%~10%
한 국	0%	N/A	7.5%~15%	0%~10%	N/A
인도네시아	0%~2.5%	N/A	N/A	0%~15%	N/A
대 만	N/A	0%~5%	0%~10%	0%~5%	N/A

※ 출처 : Willis Re, 「N/A」는 자료 없음을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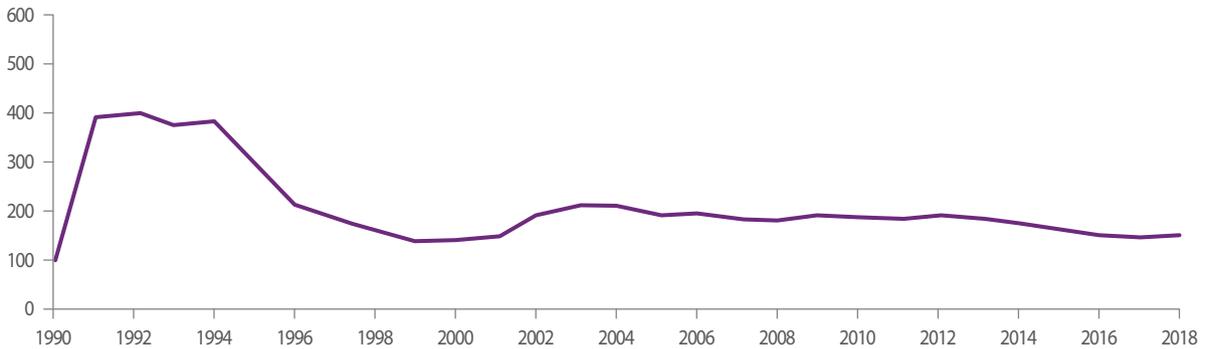
(2) 유럽

유럽은 전반적으로 작년 한 해 자연재해 발생이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재보험사들은 글로벌 자연재해 발생의 결과로 요율 하락에 대한 방어를 할 수 있었다. 유럽 시장 전체적으로 계약의 사고 여부에 따라서 요율 변동폭이 상이하였으며, 대부분 전년 동일 또는 소폭 인상되었다.

중동부 유럽의 경우 몇몇 자연재해들로 인해 비비례특약의 하위 layer가 사고 영향을 받았으며, 전반적으로 요율이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Cat XL과 Risk XL 모두 담보력이 안정적인 가운데, 사고 계약의 경우 5%~15% 범위 내에서 요율이 인상되었다. 프랑스의 경우 몇몇 재보험자로부터 요율 인상에 대한 요구가 있었으나 전통적 재보험 및 ILS 시장으로부터 담보력이 풍부한 가운데 특약 리더의 변동 없이 대부분 갱신이 이루어졌다. 무사고 비비례특약에 대한 요율 인상은 약 4% 수준에서 이루어졌다.

독일의 경우 지난 몇 년 동안 재보험 조건 개선이 대폭 이루어져 금번 1월에는 대부분의 계약에서 조건의 큰 변동 없이 갱신이 이루어졌으며 재보험 패널 변동도 거의 없었다. 또한 사이버 리스크 담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해 많은 재보험사들이 비비례특약의 형태로 담보력을 제공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비교적 일찍 갱신이 시작되었으나 최종 가격 결정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렸으며, Cat XL과 Risk XL 모두 0%~5% 수준에서 요율이 인상되었다.

〈 독일 재물보험 자연재해 요율 지수 〉



※ 출처 : Willis Re, 1990년을 기준으로 한 요율 변동 지수

〈 유럽 국가별 재물보험 1월 갱신 요율 증감 현황 〉

구분	비례특약 수수료	Risk XL		Cat XL	
		무사고	사고	무사고	사고
중동부유럽	-2.5%~0%	-2%~0%	10%	0%~5%	5%~15%
프랑스	N/A	0%~5%	0%~5%	0%~4%	N/A
독일	-1.5%~0%	0%~2%	계약별로 상이	0%~3%	5%~10%
영국	0%	0%~5%	5%~10%	0%~7.5%	5%~10%
이탈리아	N/A	0%~1%	2%~11%	0%~5%	0%~10%
네덜란드	0%	0%~5%	2.5%~5%	0%~5%	5%~10%

※ 출처 : Willis Re, 「N/A」는 자료 없음을 의미

(3) 미주

2017년 3~4분기 대형 자연재해 발생으로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하여 갱신은 비교적 천천히 진행되었으나, 요율 인상폭은 대부분 재보험자들의 기대 이하 수준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계약의 경우 5%~10% 수준에서 요율이 인상되었고, 무사고 계약의 경우 0%~7.5% 수준에서 요율이 인상되었다. 출재사들은 무사고 계약에 대한 가격 인하 요구를 통해 전체적으로 시장의 안정화를 추구하려는 모습을 보였으며, 대체자본의 지속적인 유입 역시 요율 인상 압력을 막는 하나의 요인이었다.

〈 미국 재물보험 자연재해 요율 지수 〉



※ 출처 : Willis Re, 1990년을 기준으로 한 요율 변동 지수

중남미 지역의 경우 멕시코 지진으로 인해 비비례특약의 하위 layer 및 출재사 보유분은 사고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보험 조건 변동은 거의 없었으나 지난 3~4분기 전세계 대형 자연재해 증가로 인해 출재사들 사이에서는 더 이상의 가격 하락이 없을 것이라는 암묵적인 합의가 이루어져 무사고 계약의 경우에도 소폭의 요율 인상이 이루어졌다.

〈 미주 국가별 재물보험 1월 갱신 요율 증감 현황 〉

구 분	비례특약 수수료	Risk XL		Cat XL	
		무사고	사고	무사고	사고
미국	-2.5%~0%	0%~5%	5%~10%	0%~7.5%	5%~10%
캐나다	-3%~0%	0%~5%	15%~30%	0%~5%	10%~30%
남미	0%	0%	5%~15%	0%~3%	5%~10%
캐러비안	-4%~0%	0%~10%	5%~20%	10%~20%	20%~40%

※ 출처 : Willis Re, 「N/A」는 자료 없음을 의미

(4) 중동 · 북아프리카

최근 신규 재보험사의 진입 등으로 역대 담보력이 풍부한 가운데, 손실이 발생한 Cat XL의 경우에도 1% 수준의 요율 인상 및 비례 특약 수수료율 인상 등으로 당초 예상보다 낮은 수준의 조건 개선이 이루어져 여전히 경쟁적인 시장임을 보여주었다.

〈 중동 · 아프리카 국가별 재물보험 1월 갱신 요율 증감 현황 〉

구 분	비례특약 수수료	Risk XL		Cat XL	
		무사고	사고	무사고	사고
MENA	0%~1%	0%	5%	0%	1%

※ 출처 : Willis Re, 「N/A」는 자료 없음을 의미

II. 특종보험(Casualty) 및 자동차보험(Motor)

특종보험의 경우에는 지역별, 세부 종목별로 다양한 갱신동향을 보였다. 그러나 공통적인 현상은 지난 몇 년간 재보험 구매자(출재사)들이 지속적으로 재보험 조건을 유리하게 끌고 감에 따라 요율이 하락했던 추세는 어느 정도 일단락되었다는 점이다. 대부분 재보험자들의 조건 개선 요구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큰 혼란 없이 전반적으로 질서있는 모습으로 갱신이 진행되었다.

(1) 유럽

이번 갱신은 세부 특약 조건 또는 담보의 이슈보다는 가격에 주로 집중한 갱신이였다. 전통적인 재보험 리더(leader)¹⁾들은 요율 인상을 요구했으며 결과적으로 요율 구득 과정에서 재보험사별 제시 요율의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최종 가격도 지역적으로 0%~7.5%까지 편차가 크게 나타났으며, 일부 시장의 경우 25%까지도 요율이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동부 유럽은 낮은 자기 부담액(deductible)과 보험클레임 증가로 재보험요율이 인상되었다.

프랑스는 배상책임보험과 자동차배상책임보험의 경우 0%~10%의 수준에서 요율이 인상되었으며, 작년과 비교하여 다른 조건의 변화는 많이 없었다. 이탈리아의 경우 무사고계약은 최대 5%까지, 사고계약은 최대 15%까지 요율이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 유럽 국가별 특종보험 1월 갱신 요율 증감 현황 〉

구 분	비례특약 수수료	XL	
		무사고	사고
프랑스 - 특종	N/A	0%~5%	0%~15%
이탈리아 - 특종	N/A	0%~5%	0%~10%
이탈리아 - 자동차	N/A	N/A	0%~10%
스페인 - 자동차	0%~3%	0%~10%	0%~10%

※ 출처 : Willis Re, 「N/A」는 자료 없음을 의미

1) 재보험 계약 체결시 가장 많은 담보력을 제공하는 재보험사. 흔히 보험조건, 보험요율 수준을 정하며 청약서에 인수 결정을 가장 먼저 하는 재보험사

(2) 미주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일반배상책임보험의 경우 일부 재보험자들이 담보력 제공을 최대한 늦추고 사고 계약에 대해 조건을 강화하여 요율이 최대 15%까지 인상되었다. 한편, 무사고 계약들은 대부분 전년 동일 조건으로 갱신이 진행되었다. 미국 배상책임보험 시장은 시장점유율을 높이하고자 하는 신규 진입사들로부터 담보력이 여전히 풍부한 편이다. 출재사들은 전년 동일 조건으로 갱신을 진행하고자 하였으며, 재보험 조건이 강화되는 경우 출재 물량을 줄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개인자동차보험은 모바일 기기 사용 증가에 따라 운전자의 산만한 운전으로 손해율이 상승하여 사고 빈도 및 심도가 높아져 요율이 인상되었다. 자동차보험 비례특약의 경우 변동수수료를 인하여 대한 재보험자들의 지속적인 요구가 있었다.

〈 미주 국가별 특종보험 1월 갱신 요율 증감 현황 〉

구 분	비례특약 수수료	XL	
		무사고	사고
미국 - 일반배상책임	-2.5%~0%	-5%~5%	0%~15%
미국 - 전문배상책임	-2.5%~0%	-10%~10%	N/A
유럽 - 일반배상책임	N/A	0%~7.5%	0%~25%
캐나다 - 특종보험	0%~3%	-10%~0%	0%~10%

※ 출처 : Willis Re, 「N/A」는 자료 없음 의미

III. 기타

(1) 해상보험 (Marine)

해상보험 시장은 지난 몇 년간 연이은 보험사고로 수익성이 악화됨과 동시에 지난 3분기 대형 자연재해 발생으로 인해 마켓이 하드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실적이 저조한 비례 특약을 중심으로 수수료가 인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마켓 하드화에 대한 기대로 신규 담보력이 시장에 유입되었으며, 이는 요율 상승을 제한하는 요인이 되었다.

(2) 기술보험 (Engineering)

건설공사보험을 포함한 기술보험의 경우 원보험 조건의 확정이 지연되면서 재보험시장의 하드화도 천천히 진행되는 모습을 보였다. 재보험사들의 요구로 비례특약 수수료가 인하되었으며, 사고 특약의 경우 10% 수준의 요율 인상이 이루어졌다. 비례 특약을 중심으로 재보험 담보력이 완만하게 유입되는 모습을 보였다.

(3) 항공보험 (Aerospace)

항공보험 시장은 원보험 시장과 재보험 시장 모두 가격이 안정화되는 모습이 뚜렷해지고 있다. 사고 계약의 경우 지난 10여년간 양호한 실적에도 불구하고 요율 인상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여 마켓 소프트화가 종료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IV. 시사점

과거 재보험시장은 대형 자연재해 발생 여부에 따라 하드마켓과 소프트마켓을 오가며 일정한 언더라이팅 사이클을 유지해 왔다. 즉 대재해가 발생한 이후에는 재보험 수요 대비 담보력이 부족해지면서 재보험 인수정책이 엄격해지고 요율이 인상되는 등 재보험시장이 하드화되는 모습을 보여 왔다. 하지만 지난 몇 년간 재보험시장으로 유입되는 자본이 늘어나고 보험사간 인수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보험 손실이 발생해도 요율이 크게 상승하지 않는 소프트마켓이 지속되었다. 그러나 2017년 미국 허리케인 등 대형 자연재해의 발생으로 인해 5년간 지속된 요율 하락세는 둔화되고 사고계약의 경우 요율이 인상됨에 따라 소프트마켓이 어느 정도 일단락된 것처럼 보인다. 과거에는 자연재해 발생 후 전세계 재보험 요율이 일제히 인상되면서 무사고 계약의 경우에도 반사이익을 기대할 수 있었다면, 이제는 자본시장에서 담보력이 지속적으로 유입됨에 따라 사고 계약에 대해서만 출재사와 재보험사간 협상을 통해 요율이 인상되는 모습을 보이는 등 과거와는 달라진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지난 몇 년간 지속되어 왔던 소프트마켓이 종료되고 하드마켓 추세로 전환했다고 단정짓기에는 아직 이르며 재보험 시장의 사이클에 대한 새로운 정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시장 환경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위험이 등장하고 대형 자연재해가 발생함에 따라 효율적인 보험 위험의 전가 및 지급여력 확보를 위해 재보험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보험회사와 재보험사가 장기적인 거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수익성 확보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급변하는 영업 환경 속에서 효율적인 리스크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요즘, 보험회사들은 우량 재보험사와의 거래를 통해 재무 건전성 강화에 힘쓰고, 재보험사는 보다 정교한 위험 분석, 적정 수준의 요율 산출 및 차별화된 서비스 전략으로 경쟁력 확보에 힘써야 할 것이다.



글로벌 리콜보험시장 동향

생산물과 관련된 리스크는 오늘날 가장 큰 리스크 중 하나로 대두되고 있다. 우선 제조물의 결함은 소비자들에게 심각한 안전상의 문제를 야기한다. 또한 결함이 있는 제조물을 생산한 관련 기업에는 제품의 회수 및 배상책임과 관련한 재무적 손실뿐만 아니라 기업의 평판 훼손 등과 같은 막대한 비재무적 손실이 발생한다. 생산물 결함 관련 사고는 지난 5년간 20억 달러가 넘는 보험 손실을 가져왔으며, 이는 책임보험과 관련된 보험금 청구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물 리콜(product recall)은 매해 발생 빈도에 있어서 변동이 심하고, 특정 산업에서는 시간이 갈수록 그 빈도가 증가하기도 한다. 감독당국의 제조물 안전 규제 강화, 복잡하고 통합적인 글로벌 공급 체인의 증가, 소비자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가, 그리고 소셜 미디어의 영향력 증대 등이 리콜손실위험을 증대시키고 있다. 게다가 제품에 대한 의도적인 조작 가능성 증가 및 제품 테스트 기능의 발전으로 향후 리콜 관련 이벤트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산업에서는 리콜 이벤트가 가지는 영향에 대해 여전히 과소 평가하고 있으며, 리콜에 대한 적절한 사전 계획 및 보험 등의 대비책 부족으로 리콜 발생시 손실비용은 예산을 훌쩍 넘어서기도 한다.

생산이 되었거나 또는 사용자에게 판매된 물건 중 잘못된 설계 및 제작 등으로 인해 신체상 또는 물질적인 손실이 발생함에 따라 그 물건을 수거하여 폐기하거나 고치는 비용을 담보하는 보험을 생산물 회수비용보험이라 하며, 리콜(Recall) 보험이라고도 한다. 생산물회수비용보험은 제조물의 회수, 즉 리콜과 관련한 비용을 담보하고 관련 기업의 평판 훼손을 최소화 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는 점에서, 생산물의 결함으로 인한 우연한 사고로 생긴 손해를 보상하는 생산물배상책임보험(Product liability insurance)과는 차이가 있다.

● 글로벌 리콜위험 트렌드 분석

최근 생산물리콜위험에서 나타나고 있는 글로벌 트렌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리콜의 규모가 더 커지고 있으며 파급효과 역시 확대되고 있다. 글로벌 기업들은 전세계 수만 명의 고객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생산물을 판매하고 있다. 동시에 많은 제조업체들이 생산원가 절감을 위해 부품을 공용화하고 플랫폼을 단일화함에 따라 품질에 문제가 발생시 천문학적 규모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일본 타카타(Takata) 에어백 리콜 사태는 에어백 관련 리콜로는 최대 기록을 경신 증인데, 2016년 기준 이 회사의 에어백 결함에 연관된 전세계 차량수는 3,000만대 이상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글로벌 생산시스템이 확대되면서 다양한 위험요인이 동반 발생하고 있고, 이를 관리하는 것은 관련 업체들에게 큰 과제라 할 수 있다.

둘째, 각국의 생산물 안전 및 소비자 보호 관련 규제의 강화는 리콜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미국은 식품안전 관리체계를 강화 시키고 식품안전에 관련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2011년 '식품안전현대화법(Food Safety Modernization Act, FSMA)'을 제정하였으며, 중국에서도 유해물질 오염 분류 대규모 리콜사건 이후 2015년 분류 품질관리 강화 등을 내건 '식품안전법(Food Safety Law)'을 개정하였다. 영국에서도 'EU 식품 알레르기에 관한 규정' 도입 이후 식품·음료 관련 리콜 건수가 전년 대비 6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리콜의 원인이 되는 요인이 증가하고 있다. 원재료에 표기되지 않았거나 신고되지 않은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식품 회수의 주요 원인으로 빠르게 꼽히고 있다. 견과류, 우유, 밀과 같은 제품과 관련한 리콜은 제조상의 오류 및 오염이 그 원인인 경우가 많다. 2017년에는 네덜란드산 계란에서 살충제가 발견되면서 유럽과 중국 등 16개 국가에서 회수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또한 환경 오염이 증가하는 가운데 플라스틱, 비닐 등 소비재의 독소 또한 우려사항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최근 유럽에서는 오렌지 주스, 매운 소스, 햄 등의 다양한 가공식품의 포장이 팽창하여 리콜 조치된 바 있다.

넷째, 기업이 비용 축소를 통해 이윤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식품사기(food fraud)가 증가함에 따라 리콜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기업의 평판 훼손으로 이어지고 있다. 2008년 중국에서 화학물질인 멜라민에 오염된 분유가 유통되면서 유아 6명이 사망한 분유 파동과 2013년 영국과 아일랜드에서 판매된 소고기 패티에서 다량의 말고기가 검출되었던 말고기 파동 등이 그 예라고 할 수 있다.

다섯째, 안전의 이슈와는 무관한 리콜이 증가하고 있는데, 생산과정에서 아동 및 노예의 노동력을 착취한 경우가 그 예이다. 2015년 미국과 유럽의 유명 제과업체들이 코코아 생산 과정에서 아동의 노동력을 착취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다. 지역에 따라 이런 사례들이 소비자 윤리 및 노동법 등에 위배되는 경우 기업들은 평판 및 브랜드가치 유지를 위해 관련 상품을 자체 회수해야만 할 것이다.

여섯째,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에서의 리콜이 증가하고 있다. 2014년 통계에 따르면 중국 제품이 모든 생산물 안전 관련 리콜의 51%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장난감 리콜 중 중국산 제품의 비중은 1988년 10%에서 2007년 98%까지 증가했으며, 2015년에는 미국 내 중국산 제품의 리콜 건수가 미국산 제품 대비 약 3배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아시아 전반에 걸쳐 식품 및 제품 안전 규제가 강화되고 있으며, 이는 정부 주도의 강제적 리콜로 이어지고 있다.

● 산업별 리콜 규모 분석

생산물의 회수는 기업의 비즈니스에 있어 리스크를 증가시킨다. 과거에는 리콜 과정이 비교적 간단하고 대중이 모르고 지나가기도 하였으나, 오늘날은 리콜이 과거에 비해 훨씬 복잡해졌으며 기업의 이익과 평판에 큰 잠재적 영향력을 지녀 리콜 사태에 대한 대응 결과가 기업의 존폐로 이어지기도 한다. 과태료 부과 등 리콜이행 강제수단의 강화, 다국적 기업의 증가 및 통합된 공급 체인의 증가, 생산물의 품질 테스트 관련 기술적 진보, 소송 증가, 소비자 안전에 대한 인식의 증가 등으로 리콜의 심도 및 빈도가 과거와는 크게 달라진 모습이다.

산업별로는 자동차 산업의 경우 리콜의 발생빈도가 가장 높고 평균 클레임 규모도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차량 리콜은 주로 부품과 모듈의 결함으로 발생하며 자동차산업을 구성하는 전세계 공급사슬망에 큰 문제를 발생시킨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Administration)에 따르면 2016년 5,400만 대 이상의 차량이 회수되었는데, 이는 규모 면에서 2012년 대비 3배 증가한 수치이다. 이러한 동향은 유럽에서도 관찰되었는데, 컨설팅업체 Stericycle Expert Solutions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2016년 유럽에서 자동차 리콜 이벤트 건수는 총 415건으로 전년 대비 7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과 음료 산업의 경우, 기업에 천문학적 비용을 수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심각한 문제의 경우 대중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 지난 10여년간 전세계 식품 관련 리콜은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식품 역사상 가장 규모가 큰 리콜은 2008년 땅콩버터 사건으로, 땅콩버터를 먹은 9명이 사망하고 700여명의 식중독 환자가 발생하여 미국 전역에 걸쳐 큰 파문이 일었으며 미국 정부의 조사 결과 이 땅콩 버터에서 검출된 살모넬라균이 원인인 것으로 밝혀졌다. 결국 해당 식품업체는 파산에 이르렀고 CEO는 징역 28년을 선고 받았다.

〈 리콜 발생이 잦은 산업군 (상위 5분야) 〉

(단위 : EU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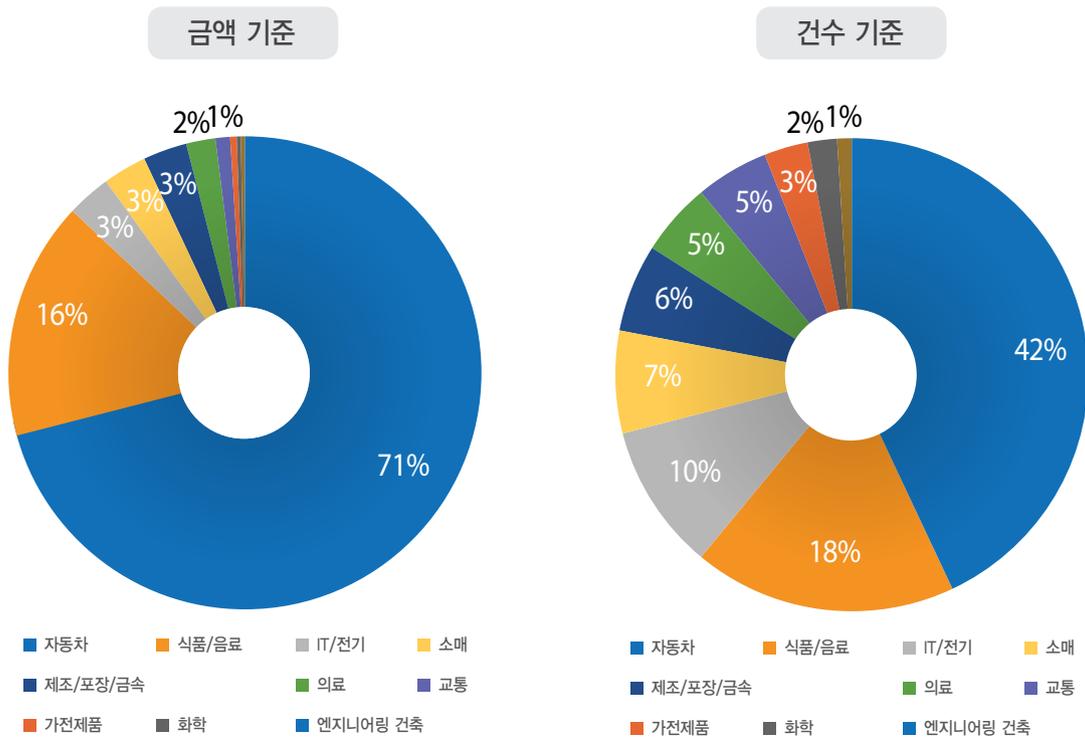
순위	분야	주요 리콜 원인(예시)	평균 클레임 규모
1	자동차/부품	자동차 조종시스템 결함, 에어컨 부품 정전, 백미러 결함	2.12M
2	식품/음료	우유, 계란, 땅콩 등에 포함된 미확인 알레르기 유발 성분	1.31M
3	IT/전기	결함이 있는 셋탑박스, 태블릿 PC의 배터리 오류, 노트북의 과열	1.1M
4	소매	아기 의류의 느슨한 단추, 결함이 있는 불빛이 나는 장난감	0.64M
5	제조/포장/금속/기계	결함이 있는 토크바(tow bar), 고장난 공기압축기	0.72M

※ 출처 : Allianz Global Corporate & Specialty

리콜보험에 대한 보험금 청구 요인을 건수와 금액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자동차산업이 두 기준 모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AGCS(Allianz Global Corporate & Specialty)가 2012년에서 2017년 상반기까지 28개국 12개 산업 섹터에서 발생한 리콜 보험금 청구금액 총 367건을 분석한 결과, 자동차산업 관련 청구 건수가 전체의 42%에 해당하였으며 금액 기준으로는 71%를 점유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자동차 관련 리콜 청구 금액이 건당 2백만 유로 이상으로 대부분 대형건이기 때문이다. 자동차 산업의 경우 자동차 업체간 글로벌 생산을 확대하면서 경쟁적으로 생산량을 늘리고, 원가경쟁으로 부품의 공용화가 확산되면서 효과적인 품질관리가 약화되었다.

식품·음료산업의 경우 건수 기준으로는 18%, 금액 기준으로는 16%를 차지하였다. 식품 리콜의 가장 일반적인 이유는 우유, 계란, 땅콩 등에 포함된 미확인 알레르기 유발성분의 발견, 병원균의 발견, 라벨링 오류, 식품의 기타 이물질(금속, 유리, 플라스틱 등) 등이다. 세탁기, 냉장고와 같은 가전제품의 경우 사고 건수 기준으로는 약 10%를 차지했으나, 금액 기준으로는 1% 미만으로 집계되어 클레임들이 대부분 소형건임을 나타내고 있다.

〈 리콜보험 보험금 청구 요인 분석 〉



※ 출처 : Allianz Global Corporate & Specialty

〈 최근 10년 내 대규모 리콜 사태 〉

사건	발생연도	주요 내용	리콜 비용
핸드폰 폭발사건	2016	삼성전자 휴대폰 배터리 결함에 의한 발화사건 → 약 100여만대의 휴대폰이 전량 리콜됨	50억 달러 이상
자동차 에어백 오류	2015	일본 타카타사 에어백 관련 리콜 → 2016년 기준, 전세계 완성차 업체 12개, 2,500만대 이상에 영향을 주었으며, 타카타사는 2017.6월 파산신청에 들어감	250억 달러 이상
자동차 점화스위치 결함	2014	미국 GM사 차량에서 점화스위치 결함 발생 → 북미지역에서 차량 3천만대 리콜	40억 달러
자동차 페달 결함	2009	일본 도요타자동차가 미국에서 가속페달문제로 대량 리콜 실시 → 총 9백만대의 차들이 회수됨	30억 달러 이상
땅콩버터 리콜	2008	미국 땅콩버터 제품에서 살모넬라균 검출 → 제조사가 자체 회수에 나섰으며, 관련사 파산	10억 달러 이상

● 리콜보험에 대한 수요 및 시사점

리콜보험에 대한 수요는 리콜로 인한 기업의 재정적 손실 및 브랜드 자산 가치에 대한 인식의 변화로 지난 몇 년간 크게 증가하였다. 리콜보험 수요는 주로 자동차, 소비재, 의약품, 의료기기 산업에서 있어 왔다. 그러나 최근 리콜보험 가입은 식품·음료 섹터에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식품·음료 기업들의 규모 증가 및 식품안전 관련 규제 강화에 기인한다.

생산물 리콜의 비용은 크게 제품 판매의 중단으로 인한 영업 손실 및 기업 휴지(Business Interruption)에 따른 재무적 손실과, 기업의 평판 훼손 및 브랜드 가치의 추락에 따른 비재무적 손실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 밖에도 재물적 손실에는 불량품의 식별, 처리 및 교체, 제3자 컨설팅 비용, 실험실 테스트 및 조사 비용, 오염된 공장의 위생 처리 및 브랜드 회복을 위한 비용 등 리콜 시행 후 요구되는 사후적 비용까지 포함되는 등, 기업의 리콜과 관련한 총 비용은 일반적인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다.

리콜의 발생은 브랜드 자산 가치에 피해를 입히며, 소비자들에게 해당 기업이 생산한 제품에 대한 신뢰도 및 기업 명성을 떨어뜨려 해당 기업의 매출 또는 시장점유율에 악영향을 미친다. 리콜보험은 리콜에 따른 재정적 손실에 대한 보상뿐만 아니라 브랜드 가치의 회복에까지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최근 국내에서는 삼성전자 핸드폰 리콜 사태로 리콜로 인한 비용손실에 대해 경각심을 갖게 되었으나, 아직까지는 보험사별 리콜보험 판매 실적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무엇보다도 리콜보험에 대한 기업들의 이해와 관심 부족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국내에서도 여러 차례 리콜이 발생하고 소비자 입장에서 리콜이 불량 제품 등 위험요소들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변해가는 경제·법률적 기업 환경 속에서 리콜 발생으로 입게 될 재무적/비재무적 손실을 감안한다면, 기업들은 리콜보험에 대해 관심을 갖고 리콜손실 위험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보험 업계에서도 리콜의 영향 및 파급력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리콜보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2017년 세계 자연재해 분석

1. 개요

2017년은 1880년 기상 관측 이래 역대 세 번째로 전세계 해수 및 대륙 연평균 기온이 높았던 한 해였다. 이로써 전세계 해수 및 대륙 연평균 기온은 40년 연속으로 세계 평균 기온을 상회하는 추세를 이어가게 되었으며, 지구 온난화 및 북극 해빙 등으로 인한 자연재해의 대형화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017년에 발생한 자연재해로 인한 경제 및 보험손해액은 200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3,530억 달러의 경제손해액, 1,340억 달러의 보험손해액을 기록하면서 2011년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던 자연재해 손해액의 흐름을 바꿔 놓았다. 이는 2000년부터 2016년 동안의 평균 경제손해액 대비 93%, 동 기간 평균 보험손해액 대비 163% 증가한 기록이다.

2017년 세계 자연재해 손해액이 증가한 이유는 허리케인으로 인한 손해가 급증한 데에 기인한다. 이 중 허리케인 하비(Harvey), 어마(Irma), 마리아(Maria)에 의해 발생한 경제손해액은 2,220억 달러, 보험손해액은 800억 달러로 전체 경제손해액의 63%, 보험 손해액의 60%를 차지하였다.

2. 세계 자연재해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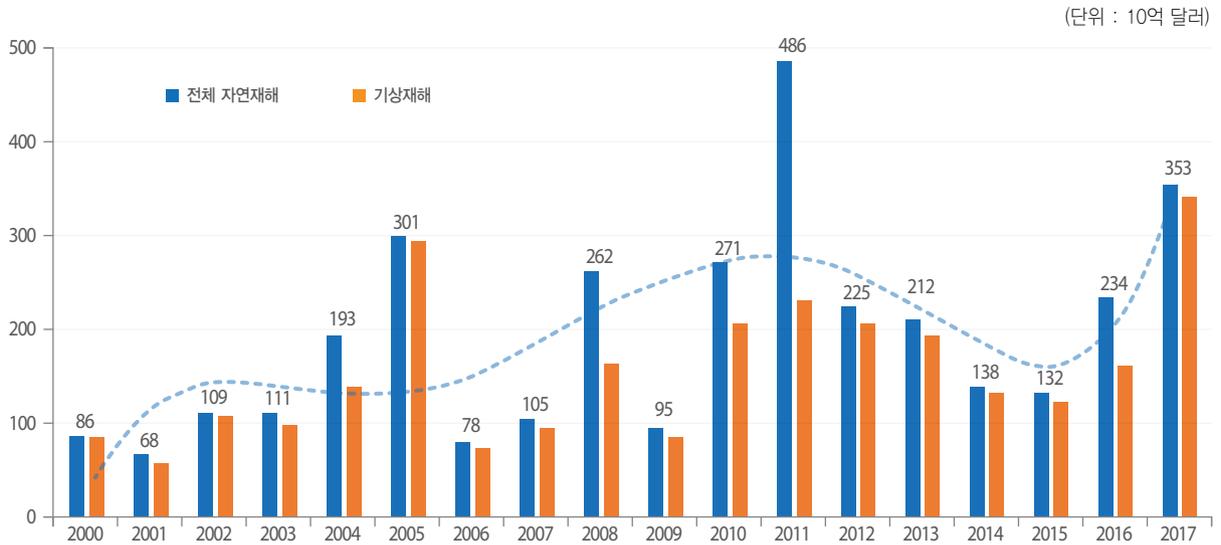
지난해 세계 자연재해는 총 330건¹⁾ 발생하였고 3,530억 달러의 경제손해액, 1,340억 달러의 보험손해액을 기록하였다. 자연재해로 발생한 사망자수는 약 10,000명으로 집계 되었다.

1) 자연재해 기준 : ① 경제손해액 5천만 달러 이상 ② 보험손해액 ③ 사망자 10명 이상 ④ 부상자 50명 이상 ⑤ 건물 2,000채 파손 중 한 가지 이상 조건 부합 시 산정

□ 경제손해액 현황

2017년 자연재해로 인한 경제손해액은 2011년에 기록한 4,860억 달러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손해로 기록 되었으며, 허리케인 등 기상 재해로 인한 경제손해액만 산정할 경우 3,440억 달러로 2000년 이후 가장 높은 손해액을 기록하였다. 이는 2000년부터 2016년 동안 발생한 평균 경제손해액(1,830억 달러) 대비 93% 상회하는 수치이며, 동 기간 발생한 순수 기상 재해 평균 경제손해액 대비 5.4% 증가한 수치이다.

〈 전세계 자연재해 경제손해액 추세 (2000-2017) 〉



2017년에 발생한 자연재해 중 경제손해액 기준으로 가장 높은 손해액을 기록한 자연재해는 허리케인 하비(약 1,000억 달러), 마리아(약 650억 달러), 어마(약 55억 달러) 순이었으며, 이어 미국 캘리포니아에 산불(130억 달러), 중국 홍수(75억 달러)가 뒤를 이었다.

〈 2017년 주요 자연재해 경제손해액 〉

(단위 : 10억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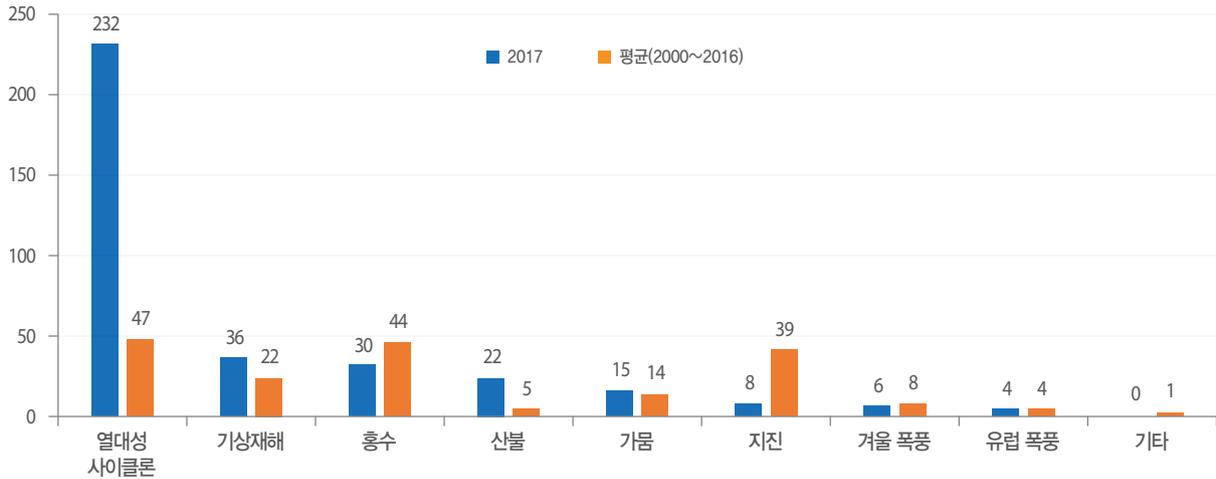
발생일	재해 유형	발생 장소	경제손해액	보험손해액
8.25-9.2	허리케인 하비	미 국	약 100	약 30
9.18-22	허리케인 마리아	캐리비안	약 65	약 27
9.4-12	허리케인 어마	미주, 캐리비안	약 55	약 23
10월	산 불	미 국	13	11
6-8월	홍 수	중 국	7.5	0.3
6-11월	가 물	남유럽	6.6	0.7
9.19	지 진	멕시코	4.5	1
7월	홍 수	중 국	4.5	0.13
8.23-25	태풍 하토	중 국	3.5	0.25
5.8-11	기상 재해	미 국	3.4	2.6
	기 타		90	38
	합 계		353	134

※ 출처 : Aon Benfield

이처럼 2017년 세계 자연재해의 경제손해액이 증가하게 된 원인은 대서양에서 발생한 하비, 어마, 마리아 등 허리케인 손해(2,220억 달러)와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발생한 산불(130억 달러)에 따른 손해액 증가에 기인한다. 지난해 허리케인을 포함한 기상 재해에 따른 경제손해액은 3,440억 달러 기록하였다. 2000년 이후 분기별 최대 경제손해액 기준으로 2017년 3분기는 2,610억 달러로 2000년 이후 역대 2위에 해당하는 수치를 기록하였다. 이는 2011년 태국 홍수 및 일본 대지진에 기인하여 3,070억 달러의 경제손해액을 기록한 2011년 1분기의 뒤를 잇는 손해액 규모이다. 직전까지 2011년 1분기에 이어 높은 경제손해액을 차지했던 해는 허리케인 카트리나(Katrina), 리타(Rita), 데니스(Dennis)로 인해 2,180억 달러의 경제손해액이 발생한 2005년 3분기였다.

〈 2017년 유형별 자연재해 경제손해액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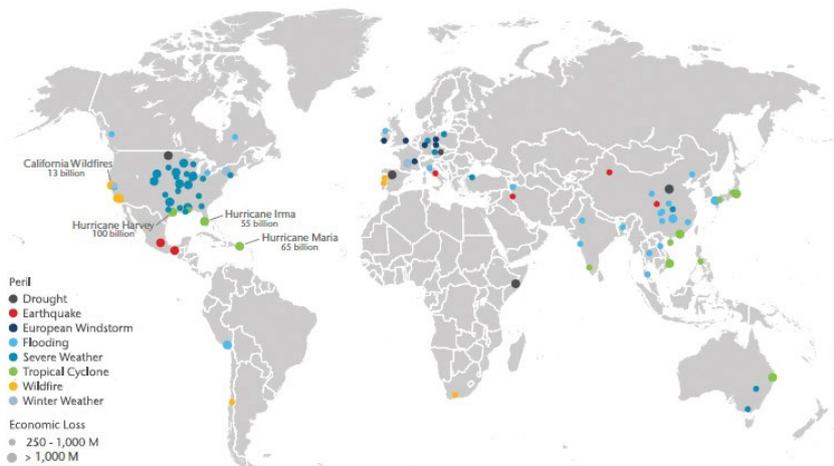
(단위 : 10억 달러)



2012년 이후 열대성 사이클론에 의한 경제손해액 비중이 가장 높은 해로 기록되었다. 2017년 발생한 열대성 사이클론에 따른 경제손해액은 2,320억 달러로 전체 경제손해액의 약 66%의 비중을 기록하였고, 대부분이 대서양 바신(Basin) 부근에 상륙한 특징을 보였다. 열대성 사이클론에 이어 높은 경제손해액 비중을 나타낸 재해 유형은 기상 재해와 홍수 및 산불이었다. 특히 홍수는 2009년 이후 가장 낮은 비중을 차지하는 경향을 보였다.

〈 2017년 전세계 자연재해 경제손해액 발생 현황 〉

(단위 :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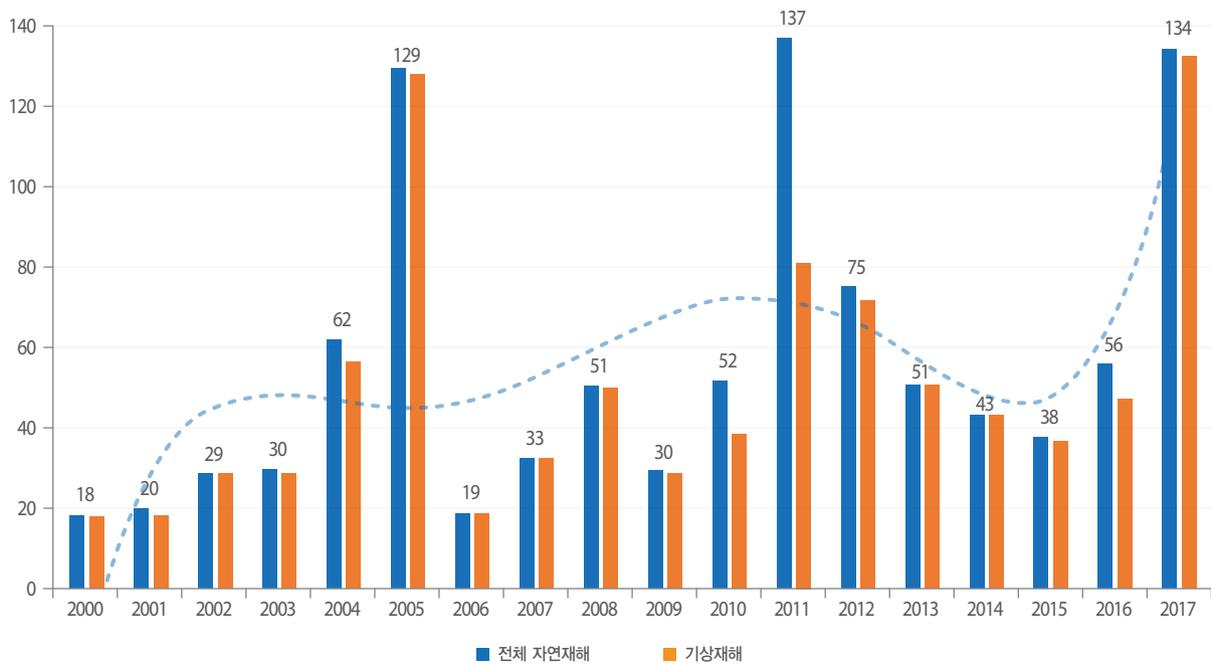
※ 출처 : Aon Benfield

○ 보험손해액 현황

2017년에 자연재해로 인한 발생한 보험손해액은 1,340억 달러로 이는 최근 17년 동안 2위에 해당하는 규모²⁾로 분석된다. 이는 허리케인 카트리나 등으로 1,290억 달러의 이례적인 손해가 발생하였던 2005년의 기록을 소폭 상회하는 수치이다. 이는 역대 자연재해로 인해 1,000억 달러의 보험손해액을 초과한 세 번째 사례이며, 허리케인 등 기상 재해의 보험손해액 기준으로 보았을 때 오히려 2005년과 2011년의 손해 규모를 상회하는 등 2000년 이후 최고액을 기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7년 전세계 보험 산업은 6,000억 달러 규모(2017년 3분기 말 기준)에 달하는 재보험 담보력과 2005년과 2011년으로 축적된 위험관리 능력 등에 기인하여 보험손해액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가능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 전세계 자연재해 보험손해액 추세 (2000-2017) 〉

(단위 : 10억 달러)



2017년 자연재해로 인한 보험손해액은 대부분 3분기에 발생한 허리케인 하비, 어마, 마리아에 집중되어 있는 경향을 보인다. 상기 세 개의 허리케인은 약 800억 달러의 보험손해액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2017년 발생한 전체 보험손해액의 60%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허리케인에 따른 손해에 이어 가장 높은 보험손해액을 기록한 자연재해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발생한 산불로 기록되었으며 최소 110억 달러의 보험손해액을 기록할 전망이다. 이처럼 2017년 발생한 10대 보험손해액 사고 중 9개에 해당하는 사고가 미국에 집중되었으며 이 중 3건이 열대성 사이클론, 4건이 기상 재해³⁾에 해당한 것으로 분석된다.

2) 이는 민영 보험사의 손해액은 물론, 미국의 National Flood Insurance Program 및 Risk Mngement Agency's Crop Insurance Program 등의 공영 보험사의 손해액을 포함하는 지급액 기준

3) 강풍, 호우, 대설, 뇌우, 이상기후 등의 기상 원인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 2017년 주요 자연재해 보험손해액 〉

(단위 : 10억 달러)

발생일	재해 유형	발생 장소	경제손해액	보험손해액
8.25-9.2	허리케인 하비	미 국	약 100	약 30
9.18-22	허리케인 마리아	캐리비안	약 65	약 27
9.4-12	허리케인 어마	미국, 캐리비안	약 55	약 23
10월	산 불	미 국	13	11
5.8-11	기상 재해	미 국	3.4	2.6
12월	산 불	미 국	3.2	2.2
3.26-28	기상 재해	미 국	2.6	2.0
3-8월	가 물	미 국	2.5	1.9
3.6-10	기상 재해	미 국	2.2	1.6
6.11	기상 재해	미 국	2.0	1.6
	기 타		104	31
	합 계		353	1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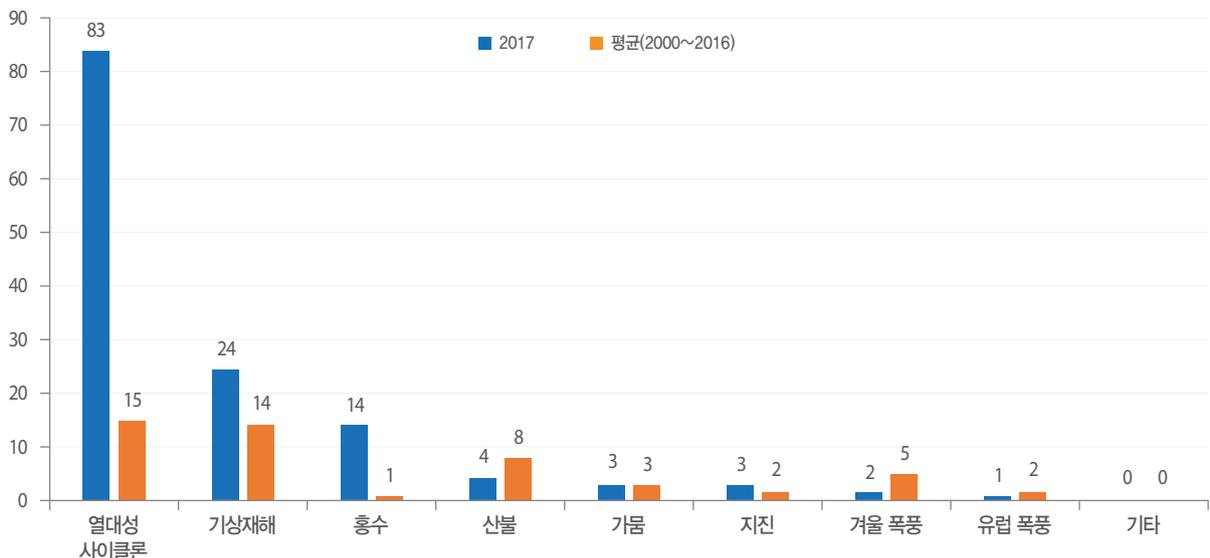
※ 출처 : Aon Benfield

2017년 자연재해로 인한 보험손해액은 경제손해액과 마찬가지로 3분기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허리케인 카트리나, 리타, 유럽 홍수 등으로 인해 1,010억 달러의 보험손해액을 기록한 2005년 3분기에 이어 분기 기준 역대 2위에 해당하는 기록이다. 한편 2011년 3분기(태국 홍수 및 일본 대지진 등)이 620억 달러, 2004년 3분기(허리케인 이반, 찰리, 프란시스) 440억 달러, 2011년 2분기(미국 기상 재해 및 가뭄, 뉴질랜드 지진 등) 370억 달러로 뒤를 이었다.

2017년 발생한 열대성 사이클론에 의한 보험손해액은 830억 달러로 2012년 이후 최대 손해액으로 기록되었다. 이는 2017년 집계된 전체 보험손해액의 62%에 해당하는 손해액이다. 뒤를 이어 100억 달러를 초과하는 재해 유형으로 기상 재해 240억 달러, 산불 140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특히 2017년 산불의 경우 단일연도 기준으로 가장 높은 보험손해액을 기록하였고 기상 재해 역시 2000년부터 2016년 동안의 평균 보험손해액을 상회하는 경향을 보였다.

〈 2017년 유형별 자연재해 경제손해액 〉

(단위 : 10억 달러)



○ 사망자 및 발생 건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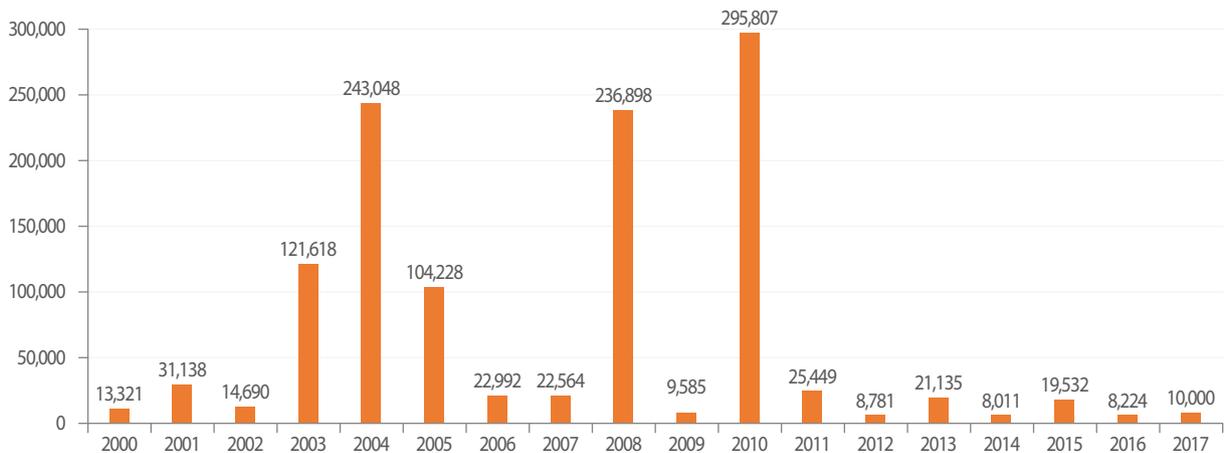
2017년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한 사망자수는 약 10,000명으로 집계된다. 사망자수 기준 10대 자연재해는 절반이 아시아 지역에 집중되었으며, 단일사고 기준 가장 많은 사망자(1,100명)를 기록한 자연재해는 시에라리온에서 발생한 홍수로 집계되었다. 이어 태풍 템빈(Tembin)은 공식적으로 두 번째로 많은 사망자를 발생한 자연재해로 기록되었다.

2017년 자연재해로 발생한 사망자수(약 10,000명)는 2016년 8,224명을 약 22% 상회하였으며, 2000년부터 2016년 동안의 평균 사망자수인 71,000명보다는 낮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2017년 세계 자연재해는 총 330건이 발생하였다. 이는 2000년부터 2016년 동안 평균 발생 건수인 275건 대비 20% 증가한 수치이며, 2분기(87건)와 3분기(113건)에 집중 되었다는 특징을 갖는다. 2017년 세계 자연재해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발생한 자연재해의 건수가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으며, 이는 해당 지역의 광활한 면적과 자연재해에 취약한 구조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미주는 제외한 여타 지역에서의 자연재해 발생 건수는 2000년부터 2016년 기간 평균 건수를 상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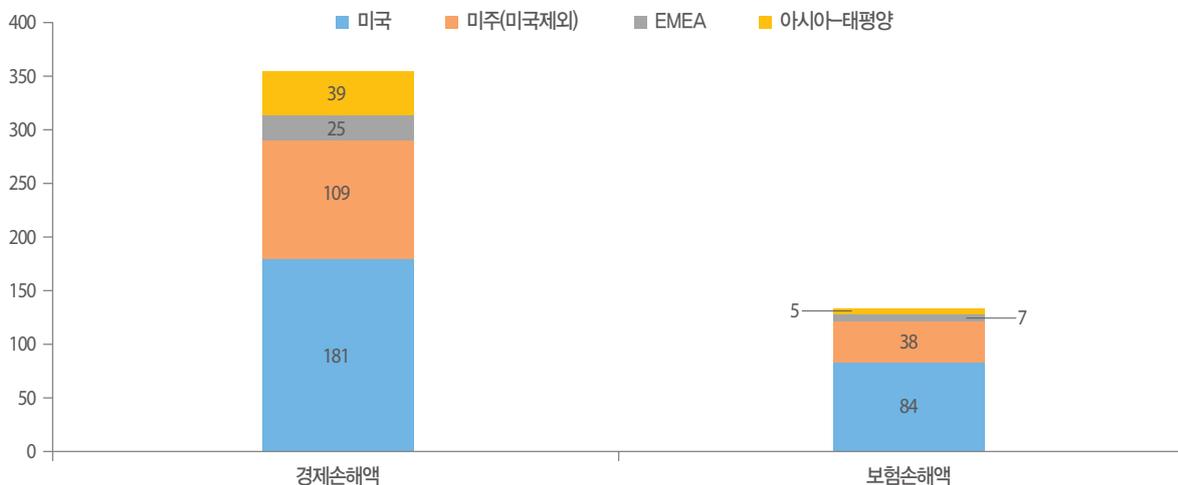
〈 전세계 자연재해 사망자수 추세 (2000-2017) 〉

(단위 : 명)



○ 지역별 자연재해 분석

(단위 : 10억 달러)



1) 미국

2017년 자연재해로 미국에서 발생한 경제손해액은 1,810억 달러, 보험손해액은 840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2005년 이후 최고 손해액으로 집계되었다. 2000년부터 2016년 기간 평균 경제손해액(610억 달러) 대비 196% 증가하였고, 동 기간 평균 보험 손해액(320억 달러) 대비 163% 증가하였다. 지난해 미국에서 발생한 경제손해액의 비중은 전체 경제손해액의 51% 수준이었으며, 보험손해액 기준으로는 63%에 달했다. 이처럼 미국에 손해액이 집중된 원인은 4등급⁴⁾으로 분류되는 허리케인의 발생 및 캘리포니아 산불, 로키산맥 중서부 일대의 우박 폭풍 등 기상 재해에 따른 손해에 기인한다.

〈 2017년 미국 내 발생 주요 자연재해 손해액 현황 〉

(단위 : 10억 달러)

발생일	재해 유형	발생 장소	경제손해액	보험손해액
8.25-9.2	허리케인 하비	텍사스 등	약 100	약 30
9.10-12	허리케인 어마	플로리다, 조지아	약 25	약 15
10.8-31	산 불	캘리포니아	13	11
5.8-11	기상 재해	로키산맥 일대	3.4	2.6
3-8월	가 물	로키산맥 일대	2.5	1.9
	기 타		37	23
	합 계		181	84

※ 출처 : Aon Benfield

2) 미주 (미국 제외)

2017년 미국을 제외한 미주 지역의 자연재해 손해액은 200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해당 지역의 경제손해액은 1,090억 달러, 보험손해액은 380억 달러로 집계 되었으며 이는 2000년부터 2016년 기간 평균 손해액 대비 각각 626%, 1,420% 증가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2017년 발생한 자연재해 중 허리케인 마리아 및 어마로 인한 경제손해액 비중(87%)이 높았으며, 이어 멕시코에서 발생한 두 차례의 지진으로 인한 손해액 비중(5%)이 뒤를 이었으나 보험침투율이 낮다는 지역 특성 상 보험 손해액은 타 지역 대비 높지 않았다.

〈 2017년 미주(미국 제외) 내 발생 주요 자연재해 손해액 현황 〉

(단위 : 10억 달러)

발생일	재해 유형	발생 장소	경제손해액	보험손해액
9.18-22	허리케인 마리아	캐리비안	약 65	약 27
9.4-9	허리케인 어마	캐리비안	약 30	약 8
9.19	지 진	멕시코	4.5	1.0
1-3월	홍 수	페 루	3.2	0.4
9.7	지 진	멕시코	1.3	0.3
	기 타		5.0	1.4
	합 계		109	38

※ 출처 : Aon Benfield

4) 허리케인 등급은 통상 가장 약한 1등급에서 가장 강한 5등급으로 나뉘며, 4등급은 풍속 기준 시속 131마일-155마일(201km-249km)의 허리케인을 말함

3) EMEA (Europe, Middle East & Africa)

2017년 EMEA 지역에서 발생한 자연재해 경제손해액(250억 달러)은 2000년 이후 17년 평균 대비 4% 감소하였으나, 보험손해액(70억 달러)은 동 기간 평균 대비 16% 증가하였다. 보험손해액의 경우, 4년 연속으로 100억 달러 미만의 손해가 발생하였으며 남유럽 일대와 이베리아 반도 일부 지역에 발생한 심각한 가뭄과 중부 유럽 일대에서 발생한 기상 재해로 인해 보험손해액이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

〈 2017년 EMEA 내 발생 주요 자연재해 손해액 현황 〉

(단위 : 10억 달러)

발생일	재해 유형	발생 장소	경제손해액	보험손해액
6-11월	가뭄	남부 유럽	6.60	0.70
10.15-16	산 불	포르투갈	0.88	0.27
11.12	지진	이란, 이라크	0.74	0.03
6.22-25	기상 재해	중부 유럽	0.71	0.64
10.29-30	겨울 폭풍	중부 유럽	0.60	0.45
	기타		15	5
	합계		25	7

※ 출처 : Aon Benfield

4) 아시아-태평양

지난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발생한 자연재해로 인한 손해액은 2000년 이후 17년 평균 손해액을 하회하였다. 해당 기간 평균 경제손해액(820억 달러) 대비 2017년 경제손해액은 52% 감소하였고, 해당 기간 평균 보험손해액(100억 달러) 대비 50% 감소한 수준으로 집계 되었다. 경제손해액 기준으로 가장 높은 손해액을 기록한 자연 재해는 중국에서 발생한 홍수(75억 달러)와 홍콩 및 남중국 일대를 강타한 태풍 하토(35억 달러)로 기록되었다.

〈 2017년 아시아-태평양 내 발생 주요 자연재해 손해액 현황 〉

(단위 : 10억 달러)

발생일	재해 유형	발생 장소	경제손해액	보험손해액
6.22-7.5	홍수	중국	7.5	0.3
8.23-35	태풍 하토	중국, 홍콩	3.5	0.3
3.27-31	사이클론 데비	호주	2.4	1.3
11.2-5	태풍 담레이	베트남, 필리핀	1.0	0.01
8.11-31	홍수	인도	0.2	0.02
	기타		약 24	약 3
	합계		39	5

※ 출처 : Aon Benfield

3. 시사점

2017년은 2016년에 이어 손해액의 규모 및 자연재해 발생 건수가 증가하였다. 이는 전지구 평균기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16년 평균기온에 이어 역대 2위를 기록한 데에서 기인한다. 또한, 해수 온도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북극해빙 면적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등 과거보다 강력한 허리케인이 발생하고 있으며 한파 및 폭설 등 기상 재해에 의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허리케인 등 기상 재해로 인해 주요 (재)보험사들의 막대한 보험손해가 발생함에 따라 향후 해당 지역의 자연재해 추이 및 보험가입 규모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관리하는 CAT Model을 지속적으로 보완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통해 언더라이팅 측면에서 질적 향상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코리안리, 국내 유일를 넘어 세계로

국내 유일 세계 10대 금융회사, 국내자본 유일의 전업 재보험사
런던 로이즈마켓에서 활동 중인 유일한 보험사
코리안리가 이제 '국내 유일'을 넘어 '세계 유일'을 향합니다.

KOREANRE

- 2011. 2. A.M Best A Stable 획득
- 2012. 9. 세계 10위 재보험사 (A.M. Best)
- 2014. 10. S&P A등급 획득
- 2015. 4. 영국 로이즈 현지법인 설립
- 2017. 7. 말레이시아 라부안 지점 설립
- 2018. 1. 두바이 지점 설립

WE SERVE TO PROTECT YOUR FUTURE

www.koreanre.co.kr